

「고고」 _ 김종길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新綠)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겨울 북한산의 특정한 모습을 통해 고고한 경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시이다.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는 여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산이 전체적으로는 수묵화처럼 차갑게 젖어 있으면서 높은 봉우리 몇 개에만 살짝 눈이 덮여 있는 때가 되어야 회복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 그 고고함은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해 버릴 만큼 고스란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섬세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한 점, ‘기다려야만 한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태도와 의지를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 1연: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 2, 3연: 눈이 조금 내린 겨울 아침
북한산의 모습에 대한 기다림
- 4~6연: 쉽게 드러나지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고고한 모습의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 주제 : 고고한 삶의 경지에 대한 지향

- ① 단정적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겨울날 이른 아침’은 화자가 고대하는 대상(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것)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 ④ 이 작품은 산(山)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탈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북한산 봉우리들의 모습을 매개로 고고함, 즉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한 경지를 언급함으로써 속된 것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보인 시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⑤ ‘그 높이’로 표상되는 고고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이전에도 북한산의 모습으로부터 세상일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지를 환기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 ⑥ 북한산의 고고함이 ‘원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어야 하는 데다가 ‘원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볼 때, 화자가 생각하는 고고함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현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지닌 것 같다.
- ⑦ ‘열은 화장을 하듯’은 직유법이 사용된 시구로, 이는 ‘높은 봉우리’ 몇 개만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북한산의 고상한 경지를 구성하는 요소인 봉우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⑧ ‘장밋빛 햇살’은 ‘장밋빛’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북한산의 고고함을 훼손할 수도 있는 대상인 ‘햇살’을 형상화하고 있다.

【THE - 깊은 독해】

* 제목 '고고'는 사전적으로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는 뜻이다. 이 시에서 '고고'함은 쉽게 볼 수 없어 기다려야 하며, 변질되기 쉬워 지키기가 어렵지만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고한 삶을 위해서는 인내와 긴장감의 유지가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산(北漢山)이 /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 시적 대상 '북한산'이 제시되고 있다. '그 높이'는 제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을 의미할 것이다. 이때 '높이'는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뒷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을 때 북한산의 고고한 경지를 보여 주는, 높은 봉우리에만 눈이 얹게 덮인 상태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북한산의 고고함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다음 겨울'은 북한산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기다려야만 한다'는 표현을 통해 기다림의 당위성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연 : 겨울에야 드러나는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 '백운대', '인수봉'등의 실제 봉우리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 눈이 살짝 덮인 모습을 비유적 표현(직유법)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 '수목으로 젖어 있'다는 표현은 회화적, 동양적, 탈속적 이미지를 유발한다. '원 산'은 왼쪽의 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모든)'의 잘못된 표기로,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에만 눈이 살짝 덮여 있고, 온 산에 얹은 먹물이 차갑게 덮인 것 같은 모습이 고고한 모습인 것이다. 이 모습을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에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북한산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1연의 '다음 겨울'과 문맥상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행은 1연의 3행을 반복 변주한 행으로, 이를 통해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는다.

▶2, 3연 : 높은 봉우리에 눈이 살짝 덮일 때만 드러나는 고고한 높이

신록이나 단풍,

→ '신록'은 여름의 계절감을, '단풍'은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낸다.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 북한산의 고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북한산의 푸르른 신록이나 북한산의 단풍, 북한산 골짜기의 안개, 북한산을 온통 뒤덮여 쌓여 있는 눈은 북한산의 고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부분의 '원 산을 뒤덮는 적설'은 위에서 언급된 '열은 화장을 하듯'과 대조된다.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 북한산의 고고함에 해당하는 열은 화장을 하듯 높은 봉우리에만 살짝 쌓인 눈은 햇살에 쉽게 녹음을 나타낸다 즉, 북한산의 고고함은 작은 자극에도 변질되기 쉬우며, 고스란히 지키기도 어려운 것임을 드러낸다. (북한산의 고고함의 특징) 이때 '장밋빛 햇살'은 북한산의 고고함을 훼손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 '고고한 높이'는 세속적인 일에 초연한 고상한 정신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 세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에 해당한다.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화자가 더러는 대상(북한산의 고고함)이 나타나는 시간일 것이다.

기다려야만 한다.

→ 3연 2행을 반복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기다림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4-6연 : 다른 계절에는 드러나지 않고 변질되기 쉬운 고고한 높이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고고한 삶을 추구하는 이]
- 상황 : 북한산의 고고한 경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자 함
- 정서·태도 : 고고한 삶의 추구 [의지적]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김종길, 「고고(孤高)」 -

(나)

흰 구름 프른 나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상(秋霜)에 물든 ㉡ 단풍(丹楓) 봄콧도곤 더 췌해라

천공(天公)이 날을 위후야뵈 빗출 품여 니도다.

김천택, 「흰 구름 프른 나는~」 -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의 방법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며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바뀌고 있다.
- ⑤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5.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다려야만 한다.’를 반복하여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을 강조하고 있군.
- ② 산봉우리에 살짝 쌓인 눈의 모습을 ‘열은 화장’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 ③ ‘차가운 수목’은 화자가 바라는 겨울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 낸 것이군.
- ④ ‘장밋빛 햇살’은 북한산의 고고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고고한 높이’는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초연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군.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 ② ㉠과 ㉡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 ③ ㉠은 아쉬움의 정서와, ㉡은 흐릿함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 ④ ㉠은 계절의 아름다움을, ㉡은 소멸의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는 화자와의 일체감이, ㉡에는 화자와의 거리감이 나타난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A]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나)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려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얕줄 아름답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의 도치를 활용해 시적 상황의 반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회의적인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행들을 연쇄적으로 배열하여 시적 대상의 유구한 역사를 형상화하고 있다.

8.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안개’가 피어오르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늦된 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의 바람은 ‘기다려야만’ 하는 당위성으로, [B]에서 화자의 바람은 ‘환하게 타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드러나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고고한 높이의 회복’을 바라고, [B]에서 화자는 ‘그 나무’가 ‘꽃불 성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눈’, ‘봄’ 등의 시어를 활용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종길의 「고고」에서는 일상에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연의 순간적인 형상은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찰나적이기에 쉽게 닿을 수 없는 정신적 지향이나 경지를 나타낸다. 김명인의 「그 나무」는 일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화자와 동일시되며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한다.

- ① ㉠은 화자가 일상에서 보는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수목화에 그려진 ‘산’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탈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③ ㉢은 ‘그 나무’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은 화자가 ‘그 나무’에게서 ‘늦깎이’의 삶에 대한 동일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다른 꽃나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나무’의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준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②

- ② (가)는 1~2행과 11~12행이, (나)는 1연과 6연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는 첫 연과 끝 연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처럼 일부 행이 같은 내용과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반복되거나 (나)처럼 첫 연이 마지막 연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한 시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거나, 반복되는 부분의 내용이 강조되거나, 운율을 형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다. (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주제 의식이,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날을 기다리며 그와 같은 고고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주제 의식이 담긴 부분이 반복되며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와 (나)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없다.
- ③ (가)의 11~12행이 어순의 도치를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순을 도치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는 어순이 도치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나)는 '수목'이라는 시어가 흑백의 대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눈으로 덮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흑백의 대비를 떠올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는 모란꽃의 색깔이 연상되고 흑백의 색채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흑백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⑤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가)는 모란이 핀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나타낸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이기 때문이다. (나)의 '~려면'이라는 표현을 가상의 상황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표현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2.

[정답 SCAN] ③

- ③ 이 시의 대상인 북한산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이려면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쓰고' 있어야 한다. 즉 대상의 높이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이지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가)에서는 '나'가 모란이 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라는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 ② (가)에서 대상(모란)은 짧은 시간 동안만 피어 있다. 시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 년 중 '삼백 예순 날'을 제외한 5일 동안만 모란이 피어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5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만 모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한다. 오랜 기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소중하며 더 아름답게 느낀다는 것이다.
- ④ (나)에서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2연과 3연에, 그렇지 않은 순간은 4연에 드러나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
- ⑤ (가)는 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3.

[정답 SCAN] ①

- ① (가)의 '설움'은 ㉠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오답 SCAN]

- ②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날, 혹은 사계절 중 봄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을 '한 해'가 다 갔다고 할 정도이므로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 ③ '찬란한 슬픔'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을, '슬픔'은 모란이 지고 닳을 때의 설움을 뜻한다. 역설적인 표현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찬란한 슬픔'은 화자의 감정을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백운대와 인수봉이 '고고한 높이'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즉 '어느 겨울 이른 아침'이 ㉢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⑤ ㉣은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이어서는 안 되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정도의 눈이어야 경험할 수 있다.

4.

[정답 SCAN] ①

- ① (가)에서는 ‘신록이나 단풍, /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 눈이래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과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쓴 북한산의 모습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추상에 물든 단풍’과 ‘봄꽃’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SCAN] ④

- ④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이라고 했으므로 장밋빛 햇살은 고고함을 쉽게 사라지게 하는 존재로서 고고함이 쉽게 얻기 어려운 것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SCAN]

- ① ‘기다려야만 한다.’가 1연, 3연, 6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고고함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감수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2연 4행에 제시된 ‘가볍게 눈을 쓰고’라는 표현을 통해 높은 봉우리에만 살짝 쌓인 눈의 모습을 ‘열은 화장’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시각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수목화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겨울 산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고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고한 높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초연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구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정답 SCAN] ③

- ③ ㉠은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 결핍 등으로 인한 아쉬움의 정서와 관련이 있고, ㉡은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끼는 화자의 만족스러움을 드러내는 흐릿함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7.

[정답 SCAN] ②

- ② (가)에서 ‘기다려야만 한다’의 반복을 통해 고고한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어순의 도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③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통한 감각적인 표현이 돋보이지만 이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 ⑤ 시행의 연쇄적 배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정답 SCAN] ①

- ① 화자는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화자가 바라는 ‘고고한 높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개’가 피어오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SCAN]

- ② [B]에서 화자는 소외된 존재인 늦된 ‘그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쓰러워하고 있다.
- ③ [A]에서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고고한 정신적 경지에 다다르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B]에서 화자는 ‘늦된 나무’가 ‘환하게 타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A]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는 ‘고고한 높이’로 표현된 고고한 정신적 경지이다. [B]에서 화자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그 나무’가 뒤늦게라도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경건한 마음을 ‘꽃불 성화’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 화자는 ‘눈’을 통해 겨울의 계절감을, [B]에서 화자는 ‘봄’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SCAN] ⑤

- ⑤ ㉡의 ‘소지’는 가을 단풍잎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그 나무’가 가을에 단풍으로 물들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힘든 수행과도 같은 삶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SCAN]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다. 화자가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수목화 그림에 비유한 것으로 ‘산’의 탈속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③ 개울의 그늘진 구석에서 자랄 공간도 마땅치 않아 뿌리가 비틀려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화자는 깨달음을 같이 얻으려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 나무’에게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